

ASK 2017 인터뷰 ② IFM인베스터스 매트 웨이드 전무

“북미·영국·유럽·호주에 신재생에너지 투자기회 많다”



“주요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도로·항만·에너지 등 인프라가 다른 투자 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호주의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인 IFM인베스터스의 매트 웨이드 전무(사진)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경제가 동반 성장하고 있고 무역이 활기를 되찾는 등 세계 경제의 전망이 밝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프라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보통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웨이드 전무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ASK 2017-글로벌 부동산·인프라 투자 서밋’ 참석을 앞두고 한국경제신문과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

그는 세계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자산 축소 프로그램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美·中 등 주요국 경제 동반성장 도로·항만 등 인프라 수요 커져

美 Fed 자산 축소 프로그램 글로벌 경제에 충격 적을 것

OECD국가들 ‘脫탄소화’ 가속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모를 오랜 기간에 걸쳐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 달에 100억달러씩 줄이기로 했는데 이는 매우 느린 속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Fed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이 국제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리스크(위험)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 인프라 자산에 돈을 빌려주는 인프라 대출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웨이드 전무는 인프라 투자가 유망한 지역으로는 북미, 영국, 서유럽,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꼽았다.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들 지역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지속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장기 수요가 많아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웨이드 전무는 “인프라 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라고 지적했다.

IFM인베스터스는 호주의 28개 연기금이 출자해 2004년 설립한 인프라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다.

유창재 기자 yoochool@hankyung.com

ASK 2017 부동산·인프라 서밋

- 일시: 10월25일
● 장소: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www.asksummit.co.kr), ASK사무국 (02)360-4209

채권형 펀드 수익률 ‘빨간불’ 자금 유출 위험 커졌다

금리 인상 우려에 시장금리 급등 한달 평균 수익률 -0.11% 손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급락)하면 채권형 펀드 수익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244개 채권형 펀드의 최근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0.11%(지난 19일 기준)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시기에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초 이후 2조8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된 초단기채 펀드도 수익률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3년 미만 채권에 투자하는 초단기채 펀드는 올 들어 미국의 ‘통화 긴축’ 움직임과 북한 리스크(위험) 등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자금을 쫓겨 나려는 개인투자자의 움직임이 몰리면서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허헌기 기자 hhh@hankyung.com

세아그룹 창업주 장손, 세아홀딩스 지분 5% 매수

이태성 전무, 소유 투자자 통해 20만주 312억원어치 취득 계약 의결권 40% 확보 ... 지배력 강화



이태성 전무, 소유 투자자 통해 20만주 312억원어치 취득 계약 의결권 40% 확보 ... 지배력 강화

고(故) 이종택 세아그룹 창업주의 장손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전무(39살)가 작은 아버지인 이순형 회장(69살)으로부터 세아홀딩스 지분 5%를 매수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전무 소유 투자회사인 HPP는 이 회장으로 부터 세아홀딩스 주식 20만 주(5.00%)를 사들 이는 계약을 지난 18일 맺었다.

이전 거래는 이태성 전무가 세아홀딩스, 이 전무의 사촌이자 이 회장의 아들인 이주성 세아제강 전무(39)가 세아제강을 이끄는 3세 경영 체제에 대한 가족 합의를 전제로 이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세아홀딩스 지분 5%를 매수했다. 이후 부친 지분을 물려받은 이태성 전무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세아제강 지분을 처분했고, 이주성 전무는 반대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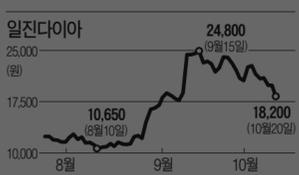
세아홀딩스 관계자는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3세 경영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오너 3세들의 주식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투자회사인 HPP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식 거래는 우량 투자자산 확보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수소차 관련株’ 일진다이하 고점 찍었나... 일진홀딩스, 주식 128억 처분

일진그룹 지주회사인 일진홀딩스가 자회사 일진다이하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진홀딩스는 지난 19일 일진다이하 주식 70만 주(지분율 6.21%)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128억원에 처분했다.



최대주주인 일진홀딩스가 지분을 팔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0일 일진다이하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700원(8.54%) 내린 1만8200원에 마감했다.

자회사 일진복합소재의 실적 개선 기대로 최근 석 달간 45.0% 뛰었다.

기립 기초체력(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일진다이하 주가가 오르자 일진홀딩스가 지분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 따르면 일진다이하의 주가수익비율(PE)은 48.17배로 비금속광물 업종 평균(14.33배)을 크게 웃돌고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급등하는 수소차 관련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able with columns for fund types, performance metrics (1 week, 3 months, 6 months, 1 year, 5 years), and fund names. Includes sub-tables for domestic stocks, domestic bonds, and domestic mixed funds.